

日총독부 法令으로 公布했다

세계 1992. 01. 16.

701

44년 8월 23일 시행 動員근거

「女子挺身」로령全文국내천

1년간「복무」의마화...풍경화

총독부기관지「朝鮮」9월호成大도서관서 찾아내

일본정부가 한국 여성을
을 정신대에 동원할 수 있
는 법령을 제정, 공포한 사
실을 밝혀주는 자료가 15
일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
된 법령에 의거, 한반도 전
역에서 조직적으로 수행한
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일
본정부의 사과 및 배상책임
이 분명해졌으며 정신대문
제연구에 새로운 전기가

한글서체

[illegible]

마련될 것으로 보인다.
충남 천안시 成和대학교
서관에서 발견된 조선총독
부기관지 「朝鮮」 9월호(1
944년) 87쪽 彙報欄에
조선총독부가 같은해 8월
23일 여자挺身勤勞令을 공
포하였음을 알리고 「조선」을

1992 01 16.

朝鮮「44」9월 11일 金文

여지挺勢動勢令문보(8월 23일)
 이를 시현하게 됐는데 그 취지에 대해
 사는 이미 여권관이 알고 있는 바에
 각다. 즉 중무장군들의 그치지 못하
 머라 남자를 대신해 후방으로 떠날
 기와 안락하고도 편안하게 조처해 줄
 산에 擬을 해 왔는데 이바지되는 여
 體정거지를 부르고 體할 정하여
 는 수시로 지함은이로부면 수안일

이종의 경우 조 다. 이밖에 이연택 전총무차관 (최주은) 강현웅 전 경제기획원